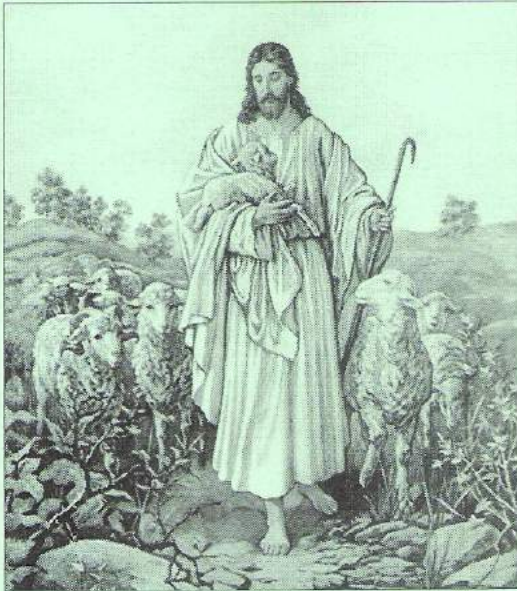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4주일
제36권 41호(다해) 2016년 9월11일

[목사]



<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천국에 갈 영혼 하나만 있어도
그 특별한 영혼을 위하여 천국의 문을 닫지 않겠다" 하셨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여 애를 태우시는 것이다.

마치 자식 잃은 부모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선 성모님처럼,
한 마리 양의 행방을 찾기에 애쓰시는 것이다.

그러다가 찾게 되면,
회개하여 돌아오면,
저주하거나 벌을 주시기는커녕
기쁨의 눈물을 뿌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분을 더는 에태우게 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자.
혹 잘못했다면,
즉시 주님께 돌아와 회개의 정을 말하며
잃었던 것을 찾은 기쁨을 드리도록 하자.

-오-

petrus3@hanmail.net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출발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2:3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 ~ 4시(오후)
월	CLOSED
화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수	CLOSED 2:00 ~ 7:00(오후)
목,금,토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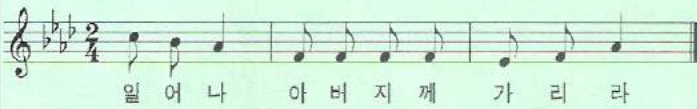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형회장 : 최기남 야코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연)이용식 베드로, 이순자 레지나, 홍찬기 대건 안드레아 & 심재순 (생)
주일 학생	(연)정완현 안드레아 (생)박영식 안드레, 한국학교 교사들과 봉사자들
주일 낮 미사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서성용 베드로, 김차욱 요셉 & 김복남 마리아, 오웅학, 고준희 제임스, 정엘리사벳 & 정 베드로, 함순희 마리아, 민형기 바오로, 연옥영혼 이사넬 톨벨도 & 조안나 & 윤주경, 진은란 아네스 (생)박정미 클라라, 손석 스테파노, 송순덕, 홍광선 요셉, 이만석 미카엘 & 이만표 가브리엘, 권이순 이레나, 한 케네스 바오로 & 제임스 베드로, 황윤재 베드로, 김정선 안나, 이병우 마리아 & 이정자 아네스, 이영희 카타리나와 자녀들, 김순희 모니카 & 김교복 데오, 권안나&테이빃 & 세이, 김임식 마누엘라 수녀 &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32,7-11.13-14

화답송 ○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붙잡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팔꿈치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

제 2독서 티모테오1서(Timothy) 1,12-17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복 음 루카 (Luke)15,1-32<또는 15,1-10>

영성체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한국 교회의 역사

제2부 교회의 진로와 민족의 수난

5. 교회와 민족주의 운동(1876~1945년)

5-1. 민족 운동에 대한 입장

교회는 우선 자신이 자리 잡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 봉사한다. 여기에서 교회와 민족의 관계가 성립하며,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교회는 민족사의 전개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민족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국 교회에도 이 점은 마찬가지다. 물론 교회가 민족주의적 단체일 수만은 없다. 교회의 사회적 기능만을 강조하는 환원주의적(reductionism) 위험성은 충분히 경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항 이후 한국 교회도 민족사의 전개에 영향을 주고받았다. 교회는 당시의 역사에 초연한 입장을 취할 수는 없었다.

개항 이후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심적인 담론은 민족주의(nationalism)와 근대화(modernization)이다. 근대 민족주의는 18세기 말엽 유럽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 사조는 인종주의와 더불어 침략적 특성을 점차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서유럽 국가들이 19세기의 70년대 이후 제국주의의 침략을 강화해 나갔을 때 서유럽 일부 국가의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와 결합된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당시 사회에서 민족주의는 이와 같이 부정적 경향을 띠고 있었다. 이에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의 교회는 민족주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보편 신앙을 추구하는 가톨릭에서는 당시의 민족주의를 지역적·혈연적 특수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여기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서유럽 교회의 부정적 인식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제3세계 지역의 민족주의는 유럽의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유럽 지역의 민족주의는 인종주의적 편견에 치우친 공격적 성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제3세계 국가들의 민족주의는 유럽 열강과 미국의 제국주의에 맞서 자신의 독립을 유지하거나 쟁취할 수 있는 정신적 기초로, 지역의 방어진 민족주의는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교회는 민족주의라는 용어의 유럽적 의미 때문에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거부해 왔다. 이는 아시아·아프리카 등지의 제3세계 지역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파생된 현상이다.

개항을 계기로 하여 조선은 제국주의의 침략에 직면해 있었다. 조선이 제국주의의 침략을 강요당하던 개항기와 식민지 시대에, 조선은 자신의 근대화를 추진하여 제국주의 침략을 막아 보고자 하였다.

<계속>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26	126	주교 영접가
봉헌	270	270	256
성체	291	291	306
파견	343	343	236

죄 많은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

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하면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당신을 닮은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당신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인간은 스스로 하느님을 피해 숨게 되었고, 마침내 낙원에서 추방되어 오늘날 우리처럼 유한하고 나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신하는 죄를 저지르는 인간의 이야기와 끊임없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두 개의 독서와 복음 말씀도 ‘죄 많은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분노하시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고까지 말씀하시지만, 모세의 간곡한 애원에 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제2독서에서는 바오로가 자신의 죄스러운 과거를 고백하면서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티모테오에게 증언하며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1티모 1,15-16 참조)

인간의 죄를 뛰어넘는 그 무한하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한 바오로는 기쁨으로 가득 찬 찬미를 드립니다.(1티모 1,17 참조)

오늘 복음은 자비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되찾은 양과 은전, 그리고 아들의 비유입니다. 되찾은 양의 비유에서 목자와 양 떼는 하느님과 그분 백성의 관계를 가리키는 고전적 표상이며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것은 구원을 뜻하는 전통적 은유입니다. 양 백 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은 죄인의 회개를 위해 먼저 다가가는 하느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되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은 하느님께서 죄인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찾은 은전의 비유에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살살이 뒤지는’ 부인의 모습은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두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잃어버린 양과 은전을 온 마음을 다해 찾아 나선다는 점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죄인의 회개를 앞서잡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찾아 나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떠한 모습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느껴 보십시오. 하느님께 용서받은 기쁨으로 가득차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가 하느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큰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한다’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느님은 영광과 찬미를 받으소서. 아멘!

◆ 홍인식 마티아 신부 / 일원동성당 주임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레 테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한경숙 안나	남혜원 스텔라
제물봉헌자			토서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김교복 레오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김금자 테레사	박혜경 레나타
제물봉헌자			토남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9월 순교자 성월 한국 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 전진 성사 축하 합니다

오늘 성인 교우 15명이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LA대교구 San Pedro Region 담당)을 모시고 미사 중에 전진성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 굳건한 하느님의 백성으로 교회와 세상에 봉사하게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 주례 :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 오창근 베드로 본당 신부님
- 전진성사자 명단 : (가나다순)
 김상규 니콜라오, 김옥순 빅토리아, 박점숙 비비안나, 박지원 페브로니아, 서영자 사비나, 신선희 글라라, 신은숙 세실리아, 신철훈 프란치스코, 안계숙 사라, 이만석 미카엘, 이일랑 마리아, 이흥권 요셉, 장원철 안드레아, 전재식프란치스코, 최영애 크리스티나

◆ 추석 합동 위령 미사

- 일시 : 9월15일(목요일) 추석 아침8시30분, 저녁 7시30분
- 미사 : 합동 위령미사
- 미사 중 분향 및 짧은 연도
- 미사예물 : 사무실에서 접수 중

◆ 백삼위 본당의 날(9월 18일) 행사 안내

- 미사 시간 변경안내 : 아침미사 : 7시 30분
 낮 미사 : 10시
- 주일학교, 한국학교는 수업이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삼위 본당의 날 행사 부스를 분양합니다.

- 9월 18일 본당의 날 행사에 각 단체별 부스를 (먹거리, 특산물, 음료 등등...) 접수 받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단체는 사무실에 신청하여주십시오.
 ● 문의: 박개순 도미니코 ☎(310) 997-7770

◆ LA대교구 다민족 연례 미사 봉헌

- 일시 : 9월17일(토) 오전 9시30분
- 장소 : LA대교구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 미사집전 : 호세 고메즈 LA 대주교
- 한복을 입고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9월 요셉회 모임 변경

- 일시 : 9월11일(오늘주일) 11시 미사후
- 장소 : 친교장 셋째주는 본당의 날 행사로 임시 변경
- 문의: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페루 선교에 보낼 학용품 모으기

- 페루의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려고 학용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비치된 박스에 도네이션 해주세요.
- 가방, 공책, 필기도구, 미술도구 등 (새것 또는 깨끗한 것)
 - 문의 : 박현희 프란치스코 ☎(310)592-4739

◆ 주일학교 소식

- 등록접수 : K~12, 첫째\$100,둘째\$80,셋째\$60 / 년
- 고등부 11학년이나 12학년 자녀분들 부모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초등부 교사가 부족한 이유로 선생님들 지도 아래 수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teacher's assistant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시간은 물론 필요시 letter of recommendation도 써드릴수있으니 자녀분들께 권유 부탁 드립니다.
- 주일/한국 학교를 위해 St. Margaret 성당에서 개최하는 페어에서 쓸 수 있는 티켓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입장은 무료이며 관심 있으신 부모님 들께서는 성당 사무실에 들리셔서 픽업해 가실 수 있습니다. 티켓은 각종 놀이기구 등에 쓰여지며 음식은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9월11일 : * PV2반 (소고기 무국 \$ 3)
 * 주일학교: 치킨까스(자모회)
- 9월18일 : 본당의 날 행사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경철호	권오상	김 명	김관기	김기정	김병조
	김병조	김상근	김선제	김양금	김여순	김영덕	김정희
	김원모	김윤진	김정희	김종렬	박미경	박씨니	변복순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변복순	서영자	송영미	안재만
	안재만	양영자	염세중	오세원	오일순	우영희	이상석
	윤희동	이근모	이민상	이상석	이원형	이인석	
	이재철	정병훈	주용순	차정애	최기남	최길주	
	최의수	한장환	현석주				
	합계:\$ 5,590						
주일미사헌금 :\$2,271	2차헌금:\$672						
성전헌금	강인모	경철호	권오상	김관기	김기정	김병조	
	김선제	김양금	김영덕	김원모	김윤진	김정희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변복순	안재만	
	양영자	오세원	윤희동	이근모	이민상	이상석	
	이인석	주용순	최기남	최길주	한장환		
	합계 : \$2,470						
감사헌금: \$3,145(박수지,익명)	성물판매 이익금: \$352						

◆ 주일학교 전진반 수업 일정

- 등록접수: 9월 11일
- First Year 수업 시작: 9/14 수요일 7~8:15
- Second Year 수업 시작: 9/21 수요일 7~8:15
- 문의: 씨니황 310-971-8907, 서정우 310-408-9070

◆ 한국학교 소식

- 9월 11일 추석행사
추석 및 민속놀이 체험하기 - 각 반별 진행
- 9월 18일은 본당의 날 행사로 수업이 없습니다.
(단 SAT반은 정상 수업합니다)

남가주 소식

◆ 성 토마스 성당 특강 "칠극"

- 강의: 김리나수녀(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 주제: "칠극" 저자: 판토하(Didace de Pantoja)
- 일시: 2016년 9월 12일(월)~13일(화) 저녁7시
- 장소: 성 토마스 성당
(ST.Thomas Korean Catholic Center)

◆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 후원을 위한 '함께 삶의 기쁨'

- 일시: 9월17일(토요일)
- 미사: 11시, 식사: 정오
- 장소: 작은 예수회 LA분원
1137Arapahoe St. Los Angeles, CA 90006

◆ 제 35기 성 아그네스 성당 키외교육

- 강의: 2016년 10월9일(주일) 낮 1시~5시
10일(월)저녁 6시~10시 중 택일
- 교육방법: 첫날 3시간강의, 1시간실습
첫 교육후 10회실습
- 교육비: \$200(당일 지불)
- 장소: 성아그네스성당 회의실
1451 Dana St. LA,CA 90007
- 문의: 성당사무실 (323) 731-4433

◆ KCBC 미주 카톨릭방송 설립 20주년 찬양의 밤

- 일시: 2016년 10월 28일(금) 저녁7시
- 장소: 성 토마스 성당
(ST.Thomas Korean Catholic Center)
- 문의: (231)256-5708

◆ KCBC 미주 카톨릭방송엔지니어/사무원모집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알고 주님께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면 됩니다.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진재 메히틸다 713-4926	본당의 날로 대체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본당의 날로 대체
	3	윤미애 안나 560-7120	본당의 날로 대체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본당의 날로 대체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김다두&아네스 9/10(토)오후5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본당의 날로 대체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본당의 날로 대체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본당의 날로 대체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본당의 날로 대체
토런스 북 정병옥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본당의 날로 대체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권태만 실베스텔 9/10(토) 오후 7시 성당2층room #3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본당의 날로 대체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본당의 날로 대체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신혜정 로사 9/9(금) 오후 7시 성당
	4	이귀관 아네스 617-3568	본당의 날로 대체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제 단체모임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	--

네로와 BJ 그리고 혐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루카 14, 27)

‘네로와 BJ’, 우리 본당에서 몸 붙이고 사는 고양이 두 마리의 이름이다. 두 녀석 다 어미들이 키우다가 이소하는 과정에서 낙오된 고양이들이다. 어릴 때 병치레도 많이 해서 병원 신세도 지고 했지만, 지금은 어엿하게 자라서 주일학교 꼬맹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런데 ‘깡패’라고 내가 이름 붙여준 또 다른 고양이가 등장했다. 녀석은 카리스마 넘치는 몸매와 몸짓으로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숯고양이. 원래 우리 본당을 영역으로 해서 살던 놈인데 네로와 BJ가 못마땅했던 모양. 매일 와서 사랑스런 네로와 BJ를 괴롭힌다. 밥도 뺏어 먹고, 남의 집을 차지하여 들어앉기도 하고, 심지어 폭력도 행사했다. 네로와 BJ의 몸에 상처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 “녀석을 응징하자!” 몽둥이도 들고, 신발을 벗어 던지기도 하고, 아무튼 쫓아내려 애썼다. 그래도 별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든 생각. ‘나의 이런 응징은 윤리적으로 타당한가?’ 고민이 되었다. 내가 아무리 우리 집 고양이 두 마리를 애지중지 여긴다고 한들, 나는 엄연히 동물학대자였다. 어느 날 강론 시간에 교우들에게 요청했다. ‘저의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누가 목상을 좀 해서 저에게 충고해 주십시오.’라고...

혐오는 혐오일 뿐이다. 내가 혐오를 통해 지켜내고자 하는 가치가 아무리 숭고하다고 해도 나는 그저 불쌍사나운 혐오자일 뿐이다. 북한을 혐오해서 대한민국의 숭고함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여성을 혐오해서 남성의 가치를 드러낼 수도 없다. 남성을 혐오해서 여성성을 들어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한다고 해서 우리의 노동시장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무슬림을 혐오한다고 해서 평화의 샘물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다. 성 소수자 들을 혐오한다고 해서 성(性)의 순결함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혐오의 대상은 대부분 우리가 저야 할 십자가들이다.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십자가이다. 좀 가벼운 십자가를 저 보겠다고 우리는 혐오라는 수단을 동원한다. 나의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종교적 무책임함을 덮어버리기 위해 혐오한다. ‘원래 그들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깡패’를 위한 밥그릇도 하나 사야 되나 보다.

◆ 김상효 신부 / 신선성당 주임

신앙의 신비

성실한 공무원이자 한 집안의 자상한 가장이었습니다.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퇴근길에 날벼락을 맞았던 사건이 새삼 생각납니다. 투신자살하던 한 젊은이에게 부딪혀 그만 안타깝게 목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 젊은이 때문에 애먼 목숨을 잃은 그 가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도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지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이런저런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몇 년 전에 제 동료 한 분은 건물 밖에 있는 다른 동료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쫓아 나오다가 현관 유리창에 부딪쳤습니다. 이마가 찢어지고 눈을 크게 다쳤습니다. 실명할 뻔했던 큰 사고였습니다. 그 가정의 경우도 그렇고, 해외여행 중에 그런 아찔한 사고를 당한 그 동료도 그렇고, 우리들이 일상 중에 가끔씩 겪는 불행한 우연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예비자 교리를 공부할 때 가끔씩 제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의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벌인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은 죄 없는 어린이들, 이른바 ‘묻지 마’살인이나 테러 등으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이웃들의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우연한 불행에 대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어떨까가 궁금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회의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배워 익히게 된 가르침 중의 하나는 바로 ‘받아들임의 신비’가 아닌가 합니다. 신앙이 아예 없었을 때나 새내기 신자일 때엔 저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우연에 대해 모든 것을 운명으로 치부했습니다. 드라마 같은 하느님 구원의 역사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미사에 참례하여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기도하며 성경과 신심서적을 읽는 세월이 더해 갈수록,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일어난 불행한 우연에 대한 원인을 따지려고 하기보다, 알고 있든, 생면부지이든, 이웃을 위해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게 없는데도 제게 우연히 일어난 불행에 대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애쓰는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더 큰 불행이 아니라서 다행이고, 그런 불행한 우연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는 깨우침을 갖도록 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어렵듯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시나브로 깨달아 가는 이런 배움의 과정이 바로 신앙의 신비가 아닌가 합니다.

◆ 하창식 프란치스코 / 수필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던 디오티레페스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공동체인 교회는 많은 결점과 부족함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이 편지를 보낼 무렵,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협력하라고 합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셋째 서간1,5-8

어느 지역 교회에서는 교회 원로가 써 보낸 편지를 무시하고 교회가 파견한 순회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곳도 있었던 같습니다. 이는 선교사들을 파견한 교회 원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순회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디오티레페스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셋째 서간 1,9-10

요한의 편지 안에는 특별히 교회 내에 분쟁을 일으킨 디오티레페스를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오티레페스는 우두머리 노릇하기를 좋아하고, 선교사들을 헐뜯고 신자들을 현혹하며 중상모략을 일삼았습니다. 디오티레페스는 일부 생각 없는 신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어 교회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신자들에게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반대로 데메트리오스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사도요한은 그의 어떤 점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셋째 서간1,11-12

교회에도 자신의 권력을 누리고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의 셋째 편지에 나오는 디오티레페스와 같은 인물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력욕이 강한 사람은 남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못하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직 내 파벌이 조성되고 자율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공동체의 봉사 정신보다는 다른 구성원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욕심으로 정치 행위에 몰두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 대신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던 디오티레페스. 오늘날의 교회에도 가장 경계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나는 가장 작은 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만이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을 적하겠습니다. 그는 나쁜 말로 우리를 ()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이들까지 ()하며 교회에서 쫓아냅니다.(요한 셋째 서간1,10)

“ 데메트리오스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로부터도 ()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요한 셋째 서간 1,12)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성인말씀

기쁨은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대가 가는 곳마다 항상 기쁨이 넘쳐흐르도록

애쓰십시오.

- 성 마더테레사 -

오는 가을엔

올 가을 나의 목표는 용서를 배우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나 역시 용서받고 나 또한 미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후회와 자책과 반성을

수 없이 오가는 나를

내가 먼저 다정하게 안아주고

가만 다독이는 일입니다.

어느새 바람 끝이 서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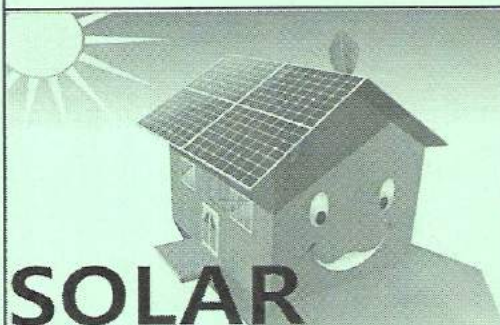
-이영 아네스-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422 LA, CA 90006
☎(213)480-0911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자책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AmGreen Solar / LED
윤철 아오스딩 310-321-8600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융자 / 재융자 / 홈 에퀴티 라인 Tax 보고서 없이가능(30년 고정)

Direct Lender

이인석 비오(213)393-5572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잭마-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시 대기

TEL)310-516-8282

조셉 홍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영목 목사

President Yang M. Jung

Lic. #FDR1124 / CB9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 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보나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한스 전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